

# 농진청, '국산 밀 신규 우수 계통' 현장 평가회 개최

농진청이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밀 가격 부담 속에서 국산 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종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진청은 28일 광주광역시

를 비롯해 한국우리밀농협, 구례우리밀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 대상은 농진청청 맥류 작물과가 육성해 지역적응시험을 진행 중인 우수 계통으로, 면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28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산 밀 신규 우수 계통 현장평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전용·행용 특화 후보 계통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 수요자 참여형 평가로 지역 맞춤형 품종 선발

시농업기술센터 시험 재배지에서 신규 육성 밀 우수 계통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우수 신종 품종을 발굴·보급해 국산 밀 자급률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관계

자 품종인 '전주435호', '전주436호'와 빵용 품종인 '전주437호'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들 계통의 생육 특성과 수량성을 기존 품종과 비교하며 지역 맞춤형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김시라 소장은 "광주와 전남은 국산 밀 주요 재배 지역인 만큼 지역 기후에 적합한 우수 신규 품종 선발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이모작 작부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국산

밀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진청 기초식량작물부 김기영 부장은 "국산 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지역별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있다"며 "지역 기

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신종 품종을 개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연계한 계통 단지 조성으로 우수 종자의 조기 확대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tya0712@daum.net

# 농협, 4월 우박·저온 피해농가 숨통 틔운다

## 피해조사 완료 후 추가 대책도 검토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박과 저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영농 회복을 위해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긴급 지원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우박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적인 배추산지인 전남 나주 지역은 작과 불량에 따른 생산량 감

소와 상품성 저하가 우려되면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피해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영양제와 비료 등 생육 회복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신속히 공급해 작물의 생육 촉진과 피해 최소화해 나갔다. 또한 향후 우박·저온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무이자 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 피해 농가가 하루 빨리 영농을 재개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협중앙회 본점

# 농업기술진흥원, 'AI 전환 비전공유회' 개최



▲농진원 이석형 원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은 1일 전북 익산 본원에서 '농진원 인공지능(AI) 전환 비전공유회'를 열고 공공서

비스 혁신과 미래 농업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농민축산식품부와 농촌진

흥청의 AI 전환 정책에 발맞춰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농진원은 '준비를 넘어 실행으로(Ready, AX-TION)'를 슬로건으로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지정에 따라 AI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확산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학습모임 운영, 임직원 역량교육 확대, AI 윤리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조직 혁신도 추진한

## 조성·조직 혁신 등 3대 추진 방향 제시

△미래 농업업 성장 기반 조성 △혁신 조직문화 조성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농진원은 AI 영상분석 기반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점검체계 구축, 지능형 기술사업화 지원, AI 활용 창업기업 성장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다. 기관장 주도의 'AI 전환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석형 원장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tya0712@daum.net

# 농협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유통시장 이끌겠다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생명빌딩에서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과일·채소 부문 MD, 흡소핑·e커머스 등 마케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MD·마케터 소통간담

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산물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기명 사전질문과 즉석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통 채널별 판매 전략과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상품 차별화 방안 등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

였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MD와 마케터는 유통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력"이라며 "농협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로 유통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tya0712@daum.net

# '파레트', 대파밭 광엽잡초 방제 새로운 해법 제시

## 미국나팔꽃·등근잎유홍초 등 문제 잡초 관리 중요성 확대



▲파레트 광엽잡초 제초 효과(경농 제품)

대파 재배 현장에서는 생육기 광엽잡초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나팔꽃, 등근잎유홍초, 털비름, 명아주 등 광엽잡초는 생육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강해 초기 관리 시기를 놓칠 경우 양분 경쟁과 생육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배환경 변화와 함께 발생 초종이 다양해지면서 토양처리 제초제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사례도 늘고 있다. 방제를 놓친 광엽잡초는 빠르게 생육하며 포장 관리와 수확 작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

어 초기 밀도 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미국나팔꽃이나 등근잎유홍초와 같은 덩굴성 문제잡초는 생육이 강하고 제거가 까다로워 재배 농가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꼽힌다.

## 대파밭 광엽잡초 선택성 제초제 '파레트' 출시

경농은 이러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2026년 신제품 '파레트'를 선보인다.

파레트는 대파에 등록된 유일한 광엽잡초 경엽처리 제초제로, 대파 재배중에 발생하는 광엽잡

초를 생육초기에 선택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특히 대파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엽처리 방식으로 약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문제 광엽잡초에 대한 우수한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레트는 미국나팔꽃, 털비름, 등근잎유홍초, 명아주, 어저귀 등 다양한 광엽잡초에서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잡초 5cm 이내 조건에서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 작물 약해 부담 줄이고 현장 활용성 높여

작물의 안전성 역시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처리 후 일시적으로 대파 줄기와 잎 끝 일부 마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후 회복되며, 경쟁약제 대비 약해 안전성도 우수하게 확인됐다. 고온 조건에서도 확실한 제초 효과를 보여 대파 재배 현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